

Vis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Jung-Gi Im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의 비전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이사장

임정기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AMC) has launched as a corporate aggregate in August 2008, since the inauguration meeting as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chool Deans” 24 years before. The mission of KAMC is to be the representing agency of medical education in Korea, producing policies and strategies, suggesting and influenci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medical education. The KAMC will consolidate its basic role and continue to expand its role as well; evaluation of basic medical education, representative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policy making of medical manpower education system.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KAMC)가 2008년 8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1984년에 대학 운영 협의, 교육에 대한 자문, 대학 간 정보 교환을 위해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가 발족한 지 24년만의 일이다.

그간 학장협은 “의과대학교육현황” 발간, 의학교육학술대회 공동개최, 의과대학 학습목표 제정,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 의학교육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의학교육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여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에 따른 의학교육계와 정부 사이의 마찰, 의사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추진, 의과대학에 대한 인정평가 강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장협의 사업 및 연구 영역도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원)장 및 부학(원)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기본의학 종합평가(Basic Medical Education, BME)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격월로 의학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여 국시원장, 교육부 고위정책 책임자, 의과대학 인정평가단장 등을 초빙하여 의학교육 관련 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영어논문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예비 의대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박람회도 개최했다.

이렇게 활동이 증가하면서 학장협이라는 임의단체

Received: February 17, 2009 • Accepted: April 2, 2009

Corresponding Author: Jung-Gi Im

D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Professor of Radiolog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02-740-8001 FAX) 02-763-0960 E-mail) imjg@snu.ac.kr

Korean J Med Educ 2009 Jun; 21(2): 95-96.
doi: 10.3946/kjme.2009.21.2.95.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수준으로는 의학교육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과정 방향 제시 및 정부와 의학교육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교섭 단체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KAMC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KAMC의 역할 모델은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이다. AAMC의 대의원회(Assembly)는 학장대표 125명, 학회대표 94명, 교육수련병원 대표 125명, 학생대표 126명, 전공의대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AAMC는 이들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council과 committee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AAMC는 의과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세우고, 미국 의학 교육의 정책을 입안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의사직의 학문적, 윤리적 기준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AMC는 닉슨 정부의 173만 달러의 연구지원 삭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리하였고, 전공의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의학영역에서 성차별 해소에 나서는 등 관리의료에 맞서 상업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AAMC만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이나 수련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학장단뿐 아니라 전체교수와 전공의, 행정전문가들에게까지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한 정책이슈인 의사양성학제의 변화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책적 영향력을 높여갈 것이다. 뒤늦은 대응으로 대안제시가 부족했던 의료계의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연구와 토론에 기반한 대안 있는 문제제기를 통해 신뢰도 높은 조직으로써 위상을 확보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KAMC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모든 의과대학들이 BME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

도적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그를 위해 기본적인 학교교육평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현재 전국 2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누어 공동출제 및 관리, 분석, 평가 등을 통해 기본적인 학교교육을 정착시켜 갈 것이다. 나아가 기본적인학교교육평가는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tep 2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정부주도의 의사국가고시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의사면허 관리는 전문직의 자율성을 토대로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학교교육평가는 자율적인 의학교육 질 관리의 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학장단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 대학 지도자로서 학장님들의 능력 향상을 돕고,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교육정책포럼을 통해 의학교육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KAMC는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 의사들은 지난 50년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무의촌 해소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정착 등에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 병원 간 경쟁의 심화, 소비자 권리확대 등으로 전문가적 정체성은 더욱 약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외부적인 환경변화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의학교육이 의학지식 및 임상술기에 비해 전문가적 자질 함양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들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학교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탄생된 KAMC는 의학교육의 목표인 지식, 윤리, 사회활동 등 다양한 덕목을 갖춘 진정한 "Professionals 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사명의 달성을 위해 정진해 갈 것이다.